

“참혹한 현장 계속 떠올라”...소방대원들 트라우마 호소

제주항공 참사 수습 소방대원에 들어보니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제주항공 참사 현장 수습에 나선 전남지역 소방대원이 심리상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이다.

8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현장 수습에 참여한 전남지역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은 모두 3729명(중복)에 달한다. 하루 평균 370여명의 대원들이 현장에서 사고수습에 나선 셈이다.

전남소방본부 소속 상담사 A씨는 사고 수습기간 긴급구조 통제단원으로 무안공항과 사고현장에 머무르며 현장 수습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상담을 주로 진행했다.

A씨는 현장에서 만난 소방대원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PTSD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추정이다.

A씨는 “화재 진화 직후 투입된 구조·구급대원들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장에서 현실 감각을 잃은 듯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소방대원들의 조짐 없는 눈과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현실에 짓눌린 모습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A씨 역시 인력 충원을 위해 갈대밭을 살피는 작업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어린이의 유품을 발견했을 때의 안타까움은 잊지 못했다.

A씨는 “그날 이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 함께 수습 당시의 상황이 자꾸 떠올라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결과, 소방관들은 비행장 한복판에서 벌어오는 매서운 바람과 맞서는 것도 힘들었지만, 가장 버티기 힘들었던 것은 참혹한 현장이었다.

이들은 갈대밭을 살피기 살피며 희생자들 훼손

갈대밭 뒤지며 유류품·시신 수습 심각한 시신 훼손 모습에 큰 충격

“제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상담 중 눈물 보이며 멍한 표정

“힘들어도 다시 일할 것” 다짐도

된 시신과 유류품을 수습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날 소방관들이 두 눈으로 바라본 현장의 참혹함과 냄새, 분위기는 잊을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됐다고 한다. A씨는 “평소에도 구조·구급대원들은 다른 직군에 비해 참혹한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적은 처음이라,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죽음을 목격해 충격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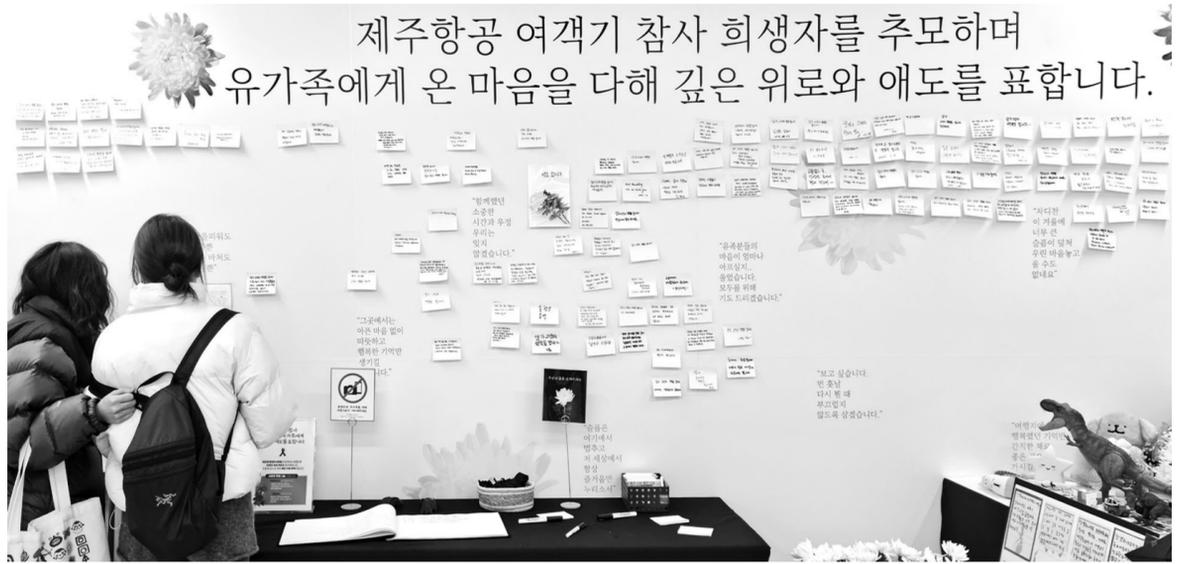
사고 현장과 가까이 즉각 투입됐던 무안·함평·영광·목포·영암 등의 소방대원들과 전남소방본부 구급·구조대원들은 PTSD의 정도가 더욱 심했다.

희생자들의 훼손된 시신을 수습했던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복귀하고 나서도 들것(간이침대)만 봐도 당시 상황이 떠오르며 힘들어 했다. 불면증 때문에 일상 생활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 현장을 떠올리며 악몽을 꾸거나 참사가 다시 발생할 것처럼 느끼는 ‘침습적 사고’도 동반됐다. 소방관 각자의 성격과 성별, 연차 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담 내내 눈물을 보이거나 멍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원들은 심리상담에서 “이렇게 괴로운데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PTSD를 호소하면서 소 소방대원들은 “다시 그



합동분향소 조문객들이 남긴 메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1일째인 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245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이 남긴 메모가 붙어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A씨는 “소방대원들은 상담받는 내내 힘들어 하면서도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그 일을 다시 하겠다고 다짐했다”며 “본인이(현장에) 가지 않으면 다른 동료들의 몫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TSD가 자연치유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내면이 고통받고 있을 수 있다. 마음의 흉터를 방지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도 너무 괴롭다면 꼭 상담을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공금 5억 별풍선에 소진한 병원 직원 징역 3년

진료비 빼돌려 사적 사용

5억원에 달하는 병원 공금을 빼돌려 온라인 개인방송 BJ를 후원하는 별풍선 대금으로 소진한 30대 전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시 남구에 있는 한 병원의 총무과 직원이었다. A씨는 2022년 9월 중순부터 2023년 12월까지 31차례에 걸쳐 병원 공금 4억973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입·출금 통장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급여 등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들의 진료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병원 직원 복지용으로 구입해온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병원 공금으로 컴퓨터 등 개인용품을 구매하거나 공금을 온라인 개인방송 플랫폼 BJ들에게 후원하는 ‘별풍선’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기간이 1년 여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유형업소 고객 정보 미끼 금품 뜯은 6명 기소

광주지검 목포지청

유형업소에서 빼낸 고객정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법정에서 서게 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경석)는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범죄 조직원 6명(4명 구속, 2명 불구속)을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유형업소에 위장 취업하거나, 온라인상 고객정보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인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빼돌린 정보를 활용해 유형업소 이용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검찰은 300만원을 갈취한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아 보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고, 피해액은 2억9000만원까지 늘었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을 통한 보완 수사로 유형업소 주변에서 암약하는 조직범죄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

검찰 “불법도박 수익금 600억, 경찰이 빼돌리지 않았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 무고죄 기소 비트코인 행방은 여전히 묘연

경찰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범죄 수익금(비트코인 1476개, 2022년 기준 600여억원)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하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이 빼돌렸다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을 무고죄 등으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는 최근 무고와 범죄수익 은닉죄 등으로 A(여·36)씨와 부친 B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도박 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등)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

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다.

해외에 머물던 B씨는 2019년 2월께 국내로 압송·수감 됐지만, 2020년 귀국한 A씨는 1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계좌에 수익금으로 들어온 비트코인 1798개(당시 기준 1430억원 상당)를 확인하고 범죄수익금 회수에 나섰다.

하지만 비트코인들이 암호화 돼 있어 비밀 번호인 ‘프라이빗 키’를 알지 못해 회수에 난항을 겪었다.

이 가운데 320개(250억원 상당) 비트코인은 최신 수사기법을 통해 환수했으나 나머지 1400여개는 다른 계정으로 사라져버렸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인출됐고, A씨의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이었다는 점에서 A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봤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 가족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는데 그쪽에서 환전하겠다”고 반문하며 ‘사라진 비트코인과 경찰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주장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쳤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608억원의 추징을 명령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압수수색 집행 중 공범에게 이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면서 추징금을 15억원으로 줄였다. A씨는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A씨의 고발건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일선 경찰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까지 했다.

검찰은 담당경찰관들의 진술, 경찰관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봤다. 결국 A씨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에 관련한 다른 공범 6명과 병합 재판을 받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창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창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창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